

이임 앞두고 네번째 광주 방문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광주 꼭 다시 찾아 KIA 경기 보고 싶다”

공식 직함보다 ‘세준이 아빠’로 더 잘 알려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광주를 네번째 방문했다. 20일 이임을 앞둔 빠듯한 일정이지만 애정을 쏟았던 광주를 다시 찾은 것이다.

그는 2년 6개월 임기 내내 한국민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 어떤 어떤 대사보다 친숙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일보와 이날 고별 인터뷰에서 “광주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인 민주와 인권을 잘 구현하는 도시”라며 다시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사 임무를 마친 후에도 광주와 한·미관계발전을 위해 할 일을 찾을 것이다. 광주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고,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의 광주사랑은 남다르다. 지난 2015년 7월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16년에는 36년 만에 ‘반미의 상징’인 전남대를 방문했고 5·18 기념재단을 찾았다.

“광주는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관을 잘 구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대사 뿐 아니라 과거역사도 흥미로워요. 전남대학교를 아들(세준)과 방문해 더 뜻깊어요. 광주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 ‘광주정신’을 갖고 살아요. 마치 제 고향 신시내티와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특별합니다.”

역대 최연소(41) 주한 미국대사인 리퍼트는 권위를 벗어던진 소탈한 리더십으로 소문났다. 그가 애원견 그릭스비와 서울 광화문 거리를 산책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대사관저에서 매일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강의를 듣는 것은 일과외 하나다. 첫 아들 이름을 세준으로 지었고 딸은 세희로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두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과 더욱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데 시간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사소하지만 각별한 한국의 정서, 밖에서 봤을 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알지 못해 아쉽습니다. 한국국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존경을 표현할 때마다 겸손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현재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긴장 모드가 조성돼 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는 순전한 방어시스템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국제법과 전 세계가 원하는 평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이 자국방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은 현명한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협상태도를 복귀해 일직 있는 외교에 나서야 해요. 미국은 중국 측에 한국을 압박하지 말고 북한에 치중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김정인과 북한 측은 ‘모든 외교채널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대화와 원칙있는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퍼트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재임 기간 잇단 북핵



광주는 내 고향 신시내티와 정서 비슷

한·미 양국 공동 가치지향 민주주의 도시

아들 세준·딸 세희 얻은 것 가장 보람

5·18민주묘지 참배·전남대 방문 뜻깊어

한미관계 ‘변영과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도발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격식과 절차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병세 외교부장관 등과 면담하며 동맹 강화에 힘썼다. 그는 한·미 양국이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변영과 협력’을 꼽았다.

“한·미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안은 무한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광주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양국의 수교와 노력이 모든 사람들의 반영으로 돌아와야죠. 지난 2015년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력과제로 제시된 안보·사이버 분야 등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 난제가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가 한국과 공동 노력해 마련한 ‘매커니즘’을 강조했다. 양 국간 의견 불일치를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요. 가족에도 의견불일치가 있듯이 국가 간에도 같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의견 불일치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매커니즘이 만들어졌어요. 기초가 튼튼하고 제도적 매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매우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워싱턴에서 열린 주한대사 취임 선서식에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목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 분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통일을 천명했어. 그는 매일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립니다.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한다는 점을 제일 배우고 싶어요. 올바른 정책에 대한 신념을 믿고나가 관찰하는 점도 리더로서 돋보여요. 그가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네가 강하면 굳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다만 행동을 강하게 하면 된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의연하게 대처했고 회복 후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 회복과정에서 그가 남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은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문구로 회자됐다.

“위기가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북성향의 한 개인이 한·미관계를 흔들수는 없어요. 부상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준 것은 한국사회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됐어요. 극단적인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도록 놔두서는 안됩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마크 리퍼트는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미국 국방부 장관실 비서실장 ▲아시아태평양보안담당 차관보 ▲해군특수전개발단 버지니아주 정보장교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부보좌관, 비서실장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외교정책보좌관 ▲미국 국방부 우수 근무훈장 ▲미국 동성무공훈장

국민의당 ‘개헌몰이’ 본격 나선다

국가대개혁위 개헌분과 조직

전국 순회 광주시 첫 토론회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 구성을 끝마친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개헌 몰이’에 나섰다.

당내 국가대개혁위원회에 개헌 분과를 조직해 전국 순회 토론회에 나서는 등 ‘대선 전 개헌 드라이브’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18일 광주에서 첫 개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면 수구패권 세력’이라며 개헌 공세를 강화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대개혁이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대선 전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임기 중 개헌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었던 만큼 대선 전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헌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대선 이후에는 권력을 얻은 세력들이 개헌을 무산시키고 지연식별 핑계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이 안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계파 패권주의와 제약적 대통령제를 양대 거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지 않은 정권 교체는 패권과 기득권의 교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은 실패한 제약적 대통령제로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고 수구패권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헌법에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의회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의 분산, 지방분권 강화의 방향으로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부산·대구·대전·춘천·서울을 돌며 개헌 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을 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개헌과 관련한 당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승격 시켜야”

광주전남연 김종일 선임연구위원

장성군의 젓줄인 황룡강의 미래 비전을 위해 황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광주전남연구원과 장성군이 공동 주최한 ‘황룡강에 생명을 불어넣는 대토론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은 ‘황룡강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황룡강의 유역면적은 564.3km²로, 장성대하류에 위치해 있고, 장성댐의 배수 영향이 상류지역에 미치고 있는 만큼 황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 정

비와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추진은 장성군이 그동안 개발로 훼손된 황룡강과 개천을 본래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황룡강 르네상스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장성군의 옐로우시티 조성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국가하천 승격 후에는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하고, 수변 저지대의 개발 억제 및 하천 내 자연식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치수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배기자 chadol@kwangju.co.kr

트라우마센터장에 오수성씨 임명

광주시는 국가 공권력 피해자의 치유공간인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할 센터장으로 오수성(69) 전 전남대학교수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출신인 신임 오수성씨는 한국임상심리학회장,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년간 비상근 계약직으로 일한다.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센터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를 치유·재활·관리 등을 한다. 개인·집단·가족 상담, 예술 치료, 교육·연구활동도 한다. 광주시는 현재 시직역 형태인 트라우마

센터의 법인화를 추진 중이며 아시아 인권 허브의 기능도 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리스트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태영21병원

- ▶ 인공신장실(아간투석)
- ▶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 당뇨병·감성선 연구소(국가공인)
- ▶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입원실(46 bed)
-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세계 백화점

유스퀘어 터미널

운암동

광주전남로

평천사거리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